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개회사(7분)

- 2023.8.24.(목) 14:00, 반기문평화기념관 -

사랑하는 제3기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기문재단과 함께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알차게 채워주시고 제신 이혜경 ‘대자연’의 회장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늘 많은 협조를 주고 제신
‘반기문 평화기념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바로 이 장소에서 가졌던
‘제3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개강식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그때보다 더욱 건강하고, 더 멋지고,
한층 성숙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진하고 희망을 키워나간다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한다는 것이고, 국가발전의 힘이 막강해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일취월장과 그 속에서 얻는
삶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고 쟁취한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 잊지 말고,
기후환경리더로서 자증심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모두는 지구촌의 기후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음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폭우와 홍수,
캐나다와 하와이 마우이섬에서의 처참한 산불,
지구촌 인구 80%, 65억 명이 경험하고 있는 극한적
폭염이 치명적인 모습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 회복 탄력성을 키워서,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인류가 그동안 보여준 가능성에 큰 의문 부호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기후 진실 앞에서의
통렬한 현실 자각과 자성이고,
그에 기반한 다층적 협력과 과감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진전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비해서 많이 느리고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5,400만톤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최정점이었던 2018년의 7억 2,700만톤에
불과 10%를 감소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 26)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후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 간에 걸쳐 30%를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30 NDC 40% 달성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6월 26일, '영국 에너지연구소',
국제 회계법인인 'KPMG',
미국 컨설팅사인 '커니'(Kearne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생산·사용은 글로벌 차원에서 작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석탄의 경우, 작년의 전 세계 소비량은 0.6%,
생산량은 무려 7% 증가해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석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5년 저의 치열한 노력 끝에 이끌어 낸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고, 벌써 1.5도 정신을 흔드는 反기후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세계 정치지도자들의 미온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기후환경의 치명적 현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극복 문제가 아직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19년 4월,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났을 때 교황께서는,

“신은 언제든 용서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연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후환경과 맞서거나 외면하면서 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세계의 정치지도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업들도 실질적이며 과감한 경영의 전환을 통해서
녹색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경영’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위장 환경 경영’, 즉 ‘Green Washing’은
결국 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후환경리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이 기후붕괴를 극복해 나갈 리더입니다.

반기문재 단과 대자연은,
대학생들이 시대의 사명감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고자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배움과 동시에 실행할
환경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환경리더가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배웠고,
또한 이전 세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붕괴에 대한 기후환경리더의 대응은
종강식 이후에 더 강력해야 하며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이미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빼놓으면 안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Net-Zero 실천활동을 통해
개인, 가정부터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발적인 활동이 아닌 지속성입니다.

여러분의 기후환경 활동이 단순히 양성과정활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활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통해
대학생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놓고,
우리 사회의 기후붕괴 대응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리더 수료자 모임인
‘셀더스’(The CELders) 활동을 통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도록
분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활동을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명 한명 수료증을
수여해드리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해 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되라고 전달하는 수료증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기후환경리더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일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한
수료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기후환경리더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후환경리더로서 여러분이 속한 대학교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품고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환경리더 3기 대학생 여러분,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가는 행성,
지구가 증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니 증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리더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
개선해 나갈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여태껏 마주한 적 없는 기후붕괴를 극복할
헌신적이고 영향력있는 기후환경리더가
되어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학기 개강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학업의 여정에 큰 성취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